보 도
자 료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 문정현 ▪공동대표 / 한상렬,한지원,염경석,고홍석,문성주,이민우 ▪전화 0654)471-5346 ▪팩스 471-5337
▪군산시 나운동 798-1 소망빌딩4층 ▪통신/천리안 munjh ▪홈페이지 : inp.or.kr / regain ▪E-meil : regain@inp.or.kr

## 문정현 신부님! 미헌병이 불법연행 :

### 클린턴은 사죄하고 군산미공군기지 사령관은 사퇴하라.

■ 상황일지

▶ 8/5일(목) 오후 2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이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주최한 한미행협 개정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대회에 한총련 통일선봉대 250여명이 참석하기 위해 오던 중 김제에서 전북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저지되었다. 통일선봉대를 기다리던 시민모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님를 비롯하여 군산지역 시민단체, 노동자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산에서 김제로 이동 중 이를 가로막는 공권력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 채 다시 군산미군기지로 돌아와 미군기지 정문과 후문을 모두 막고 약 2시간 동안 평화집회를 가로막는 전북경찰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였다. 이날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집회를 원천봉쇄 하였고 특히 미군들의 눈치를 보느라 과잉진압을 하였다.

▶ 8/6일(금) 오후 2시

군산에서는 시민모임 주최로 매주 금요일마다 2시에 '금요집회'를 쉬지 않고 가져왔고, 이 날도 한미행협 개정을 위한 제84회 금요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4:00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미군기지에 도착한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회원들을 군산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들이 한 사람씩 분리시키며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을 시켰다. 이에 항의하는 문정현, 문규현 신부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경찰은 또다시 폭력 행사하였다. 5~6명의 전경들이 한사람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발로 목과 어깨를 밟고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 2명을 전경이 집단 폭행하였으며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이 철과상 등 부상을 당하였다.

▶ 8/6일 오후 7시

문정현신부님, 오두희(전북평화와인권 집행위원장), 임연이(군산노동자의집 소장), 김민아(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4명은 미군기지 정문앞에서 비행단장 면담과 한미행협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 8/6일 오후 8시

정문앞에 앉아 계시던 신부님을 비롯한 4명에게 영화에서 범죄자를 추격할 때처럼 발전기와 써치라이트를 가지고 와 비치고 있었으며 기지안에서는 총과 곤봉으로 무장한 미군들이 폭력적 위협을 진행하였다. 8시에 미군들은 갑자기 잠겨있던 정문을 열었고 문정현 신부님과 2명을 강제로 포박하여 1시간동안 구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중범죄자 취급을 하며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몸수색과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반 인권적인 행위를 하였다. 특히 오두희씨는 미군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제로 몸수색을 당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와 미군을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8/6 오후 9시

미군들이 강제 연행한 3명의 신병을 한국경찰이 미군기지로 와서 인계 받았으나, 경찰서에 도착할때까지도 수갑을 풀지 않은 채 각기 다른 곳으로 분리하여 구금되었다.

▶8/7 새벽 3시

군산경찰서에서 구금 중이던 문정현 신부님, 오두희, 김민아씨 연행 6시간만에 귀가조치로 경찰서에서 풀려남

## ■ 연행자 명단

8/6일 밤 9시경 연행... 8/7일 새벽 3시 귀가조치

- 문정현(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대표),
- 오두희(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 김민아(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간사)

## ■ 우리의 요구

- 이번 사태는 주한미군의 임명권자인 미국 대통령 클린턴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의 한국민에 대한 공개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 비행단장의 면담과 5개 요구사항의 평화적 주장에 대해 불법연행 및 구금,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한 군산 미군기지 비행단장을 즉각 본국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한다.
-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묵인한 군산 경찰서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등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주한미군은 그 동안 우리가 요구해왔던 5개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 투쟁일정

● 8/13(금) 오후 2시 : 한미행협 개정 및 미군기지 사령관 사죄 촉구 전북도민 결의대회

# 성 명 서

## 반인권적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으며, 매주 금요일 군산 미군기지 앞 "금요집회"를 전개하는 것도 벌써 84회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군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주한 미군 범죄를 고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의 개정과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사건, 위폐사건, 폭행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범죄들과 싸워온 것이다. 이는 이후 군산 시민이 그 동안 주한미군에 의해 고통받아 왔던 오욕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온갖 만행들을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과 군산 시민이 함께 했으며, 이런 성과물들이 모여 주한 미군 범죄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 왔다. 또한 지속적인 금요집회를 통해 주한미군의 부당한 요구와 사유지 무단점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그 동안 오만하기 그지없었던 주한미군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80회가 넘는 집회 동안 한국 경찰과의 대치를 계속해 왔다. 미군기지 앞에만 있으면 광폭해지는 한국 경찰은 한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주한미군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한국 경찰의 올바른 대응을 통해 평화적인 금요 집회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제84회 금요집회(1999년 8월 6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폭력적인 진압으로 일관했다. 금요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소속 회원들을 에닐곱 명의 전경이 둘러싸고 일방적인 구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제 84회까지 진행되어 온 동안 수십차례에 폭력 진압이 있어 왔지만 이번 84회 집회는 5개 중대를 동원하여 더욱 광폭한 진압을 했다. 결국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미군기지에서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집회를 정리하였다.

그래서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이신 문정현 신부님은 84회 집회가 끝난 이후 12시간 안에 다시 미군 기지를 방문한다는 것을 한국 경찰에 알리고 군산 기아특수강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기아특수강 집회가 끝나고 저녁 7시경 다시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대표자 면담을 요구하며 4명(문정현, 오두희, 임연희, 김민아)이 평화적인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항의 시위를 하는 동안 주한미군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위협적인 무장 시위를 하면서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4명에 대해 무장 위협을 했으며, 그러던 중 밤 9시 경 주한 미군 헌병측이 갑자기 정문을 열고 나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3명(문정현, 오두희, 김민아)을 전격 연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연행 과정에서 왜 연행을 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미군 기지 헌병대로 끌려가게 되었다. 불법 연행시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등 전쟁 포로를 방불케하는 불법 연행을 자행했다. 또한 여성이 2명이나 있었는데 주한 미군이 보는 앞에서 반인권적

인 몸수색을 전개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은 나가 줄 것을 요구했지만 더욱 강압적인 자세로 몸수색을 강행했다. 결국 주한 미군 헌병대에서 1시간이 넘는 불법 구금이 자행되었으며, 이후 밤 10시 5분경 한국 경찰에 인계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경찰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주한 미군의 오만하기 그지 없는 행위이며, 결국 한국민을 자신의 노예쯤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처사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84회 금요 집회시 폭력적인 진압으로 일관한 한국 경찰과 불법 구금을 자행한 주한 미군측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위해 온갖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하게 점령된 우리 영토에 대해 당연한 권리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이렇게 요구한다.

<요구사항>

첫째, 이번 사태는 주한미군의 임명권자인 미국 대통령 클린턴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의 한국민에 대한 공개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비행단장의 면담과 5개 요구사항의 평화적 주장에 대해 불법연행 및 구금,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한 군산 미군기지 비행단장을 즉각 본국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묵인한 군산 경찰서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등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주한미군은 그 동안 우리가 요구해왔던 5개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당했던 오욕의 역사를 다시 세우고, 우리 한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하는 바이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보 도
자 료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 문정현 ▪공동대표 / 한상렬,한지원,염경석,고홍석,문성주,이민우 ▪전화 0654)471-5346 ▪팩스 471-5337
▪군산시 나운동 798-1 소망빌딩4층 ▪통신/천리안 munjh ▪홈페이지 : inp.or.kr / regain ▪E-meil : regain@inp.or.kr

# 문정현 신부 미헌병 불법연행 : 미군측에 항의서한 전달

1999년 8월 9일(월)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이하 사제단)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은 8월 6일 문정현 신부외 2명을 불법연행한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이제까지 사제단과 시민모임은 수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공문을 미군측에 전달하였으나 단 한 번의 답신도 보내지 않았었다. 애초 미군측은 한국민과 대화를 거부하고 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날 역시 미군측은 서한 전달만을 하겠다는 사제단을 무장 헌병까지 배치 시킨 상태에서 아무 반응없이 1시간 30분동안을 정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한국국민에 대한 자세는 한·미 행정협정 수준과 같이 굴욕적인 것이었다.

사제단과 시민모임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미국측에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하였으나 미국측은 현재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제단과 시민모임은 계속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굴욕적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지 않는 미국이 있는 한 사제단과 시민모임은 계속하여 집회와 시위를 할 것이고 이에 한국경찰은 미군이 아닌 대한민국 시민의 편에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하라!**

보 도
자 료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 문정현 ▪공동대표 / 한상렬,한지원,염경석,고홍석,문성주,이민우 ▪전화 0654)471-5346 ▪팩스 471-5337
▪군산시 나운동 798-1 소망빌딩4층 ▪통신/천리안 munjh ▪홈페이지 : inp.or.kr / regain ▪E-meil : regain@inp.or.kr


## 문정현신부 강제구금 항의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회

1. 3년만에 조성되고 있는 SOFA 개정협상 국면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모임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에 SOFA개정을 위한 전국 연대기구 건설을 제안하였고, 이에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준) 결성되었다.

2.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준)에서는 9월 10일(금)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문정현신부 강제구금 항의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대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집회는 97년 조중필씨 살해사건의 범인의 무죄판결과 동두천 이정숙씨 사망 상황에서 치루어져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장 소 : 종로 탑골공원
- 일 시 : 1999년 9월 10일(금) 오후 2시
- 대 회 명 : 문정현신부 강제구금 항의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대회
- 집회내용 ①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 ②평택 미군기지 탱크위협 사건 ③문정현신부 강제구금 항의
- 식 순

사 회 : 최종수신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개 회 사 : 홍근수목사 (평통사 대표)
경과보고 : 배종진 (기지공대위 사무국장)
규탄사 1 : 조중필씨 어머니
규탄사 2 : 김용환교수 (기지공대위 집행위원장)
규탄사 3 : 문정현신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 : 대표단